



가톨릭 안동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통합 생태적 교회를 향하여
실천사항- 생명의 밥상을 차립시다.

제319호 2025년 2월 9일(다해) 연중 제5주일



<1981.11.18. 안동 농민회관>

"나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요한 15,1)

<안동 가톨릭농민회의 어제와 오늘>: 추수 감사제 및 안동농민회관 봉헌식

제1독서 이사야서 6,1-27.3-8

화답송 ◎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손상오 신부 곡



제2독서 코린토 1서 15,1-11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

복음 루카 5,1-11

영성체송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배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홍보·전산
오픈카톡

선생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풍기 본당 주임
김학록 안셀모 신부



오늘 복음(루카)과 같은 내용이 마르코와 마태오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 해변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어부들을 보시고 느닷없이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어구를 버리고 부모를 떠나 예수님을 따라나섭니다. 이런 상황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 루카 복음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어부들이 아무 망설임 없이 훌쩍 예수님을 따라나설 수 있었던 상황을 잘 이해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겔네사렛 호수가에 모여든 백성을 가르치실 곳으로 시몬의 배를 선택하십니다. 얼마 전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신 적이 있었기에 부탁하기가 만만했을 것입니다. (루카 4,38)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신 다음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데로 저어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선생님, 저희가 밤새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못잡았습니다. 그러나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놀란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본 베드로와 동료들은 배를 저어다 물에 대어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가게 됩니다. (루카 5,4~11) 이것은 베드로가 뭔가 커다란 체험을 한 후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 부분은 평생 어부로 살아온 시몬이 자신의 전문성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어떻게 고기잡이에 문외한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지게 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만일 시몬이 예수님의 제안을 무시해서 그물을 던지길 포기했다면 12사도의 으뜸인 베드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진 것은

베드로의 인생에 더없이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물을 던지기 전의 예수님은 ‘선생님’이었는데, 고기잡이의 기적을 체험한 후의 예수님은 ‘주님’으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판단을 버리고 그물을 던지도록 영향을 준 몇 가지 원인을 추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모를 비롯하여 여러 병자를 고쳐 주신 일들과 마귀를 쫓아내신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모종의 믿음을 갖게 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루카 4,31~41)

두 번째, 자신의 배에서 백성을 향해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제일 가까이에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깊이 공 감했던 점이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하면 뭔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졌기에 그분의 가르침대로 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 1,35~42)

형제 자매 여러분!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고 싶은 소망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시몬이 예수님 제안대로 그물을 내릴 결심을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지는 3가지 방향에서 노력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①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신자들(레지오, 빈첸시오, 구역반장, 선종봉사부, 생명환경 활동)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자극을 받으면 좋을 것입니다.

② 성경 읽기와 쓰기를 비롯하여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는 노력이 꾸준히 뒤따르면 신앙성숙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③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고 싶다는 기대를 간직하는 것, 묵은 나를 버리고 주님 안에서 매일 새롭게 살고자하는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신앙성숙의 계기를 만날 것입니다.

추수 감사제 및 안동농민회관 봉헌식(1981.11.18.)

표지 사진 설명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 연합회는 쌀 생산비 보장 요구와 당면한 농정의 문제점에 대해 농민의 주장과 결의를 밝히는 추수감사제와 농민회관 축성식을 11월18일 개최하였습니다.

1부 : 추수감사미사 및 농민회관 축성식

- 주례 및 강론: 안동교구장 두봉 주교 - 쌀 생산비 조사와 보장 운동 경과보고
- 농민회관 축성 봉헌 - 결의문 채택: 농민들의 주장 및 요구(농산물가격 결정권 찾기 등)

2부 : 나눔의 잔치 - 떡과 술 나눔, 농악과 탈놀이, 줄다리기, 꿰지나칭칭나네, 농민가 합창 등

행사에 신자들과 성직자들의 참여가 많아 사목적 의미를 높여 주었고 농민회관 축성식과 겹하게 된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있었습니다. 또 연례적으로 연합회 차원에서 추수감사제를 진행하되, 각 지역의 조직 역량이 커짐에 따라 지역별로 개최하고 준비함으로써 조직원 양성과 재교육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더 많은 참여를 끌어내자는 향후 운영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2025년 「가톨릭안동」 1면에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실천사항: 생명의 밥상을 차립시다>에 따라 가톨릭 농민회의 주요 사건과 생명 농업의 생산 (분회)-판매(우리농 매장)-소비(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다룹니다. <안동가톨릭농민회>에서 제공해 준 사진과 자료를 토대로 묵상글을 담습니다.

호야와 두봉 주교님 (2)

허태임 플로라

식물분류학자·국립백두대간수목원 연구원
《허태임의 초록목록(김영사, 2022)》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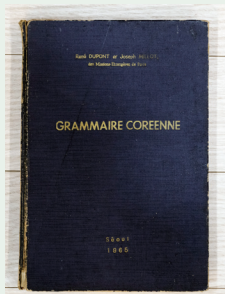
한국에 도착한 이듬해 대전 대흥동 성당에서 보좌 신부를 시작으로 두봉 주교님은 십여 년간 대전에 머무셨다 한다. 그때가 한국어를 깊이 익힐 수 있던 시기이기도 했다고.

한국말 배우기 참 어려웠습니다. 학습서에 적힌 “바둑아 이리 오렴.”을 읽으면서 ‘아니 바둑은 둘이서 바둑판을 가운데 두고 두는 거 아닌가. 그게 어떻게 이리 올 수가 있단 말이지?’ 고개를 흔들며 다시 책을 보면 그 문장 아래에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드는 그림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대전에 살 때 한번은 누가 누구를 가리키며 “어서 두봉 신부에게 사과를 드리세요.”하는 거예요. 저분이 나한테 잘못된 일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사과를 하라는 말인가 싶어 참 난감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당황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 아니 글썄 저기서 사과를 한 아람 갖고 오더군요.

한국어의 동음이의어를 이해하는 까다로운 과정이 지금은 멋진 위트가 되었다. 1965년에 주교님은 프랑스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책을 냈다. 정확하게는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파견될 사제와 선교사를 위한 책이라 했다. 그 책을 주교님이 내 앞에 펼쳐 보여주셔서 나는 새로운 식물을 만난 듯이 눈을 반짝이며 탐독했다. 실생활에서 쓰는 예문들로 구성된 그야말로 너무 쓸모있는 책이었다. 책의 서문을 국어학자 이승녕 선생이 썼다. “문법학자들이 즐겨 하는 형식적인 분류와 이에 따르는 복잡한 술어의 사용을 피하고 한국어의 실재를 그대로 자료로 하여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문법을 엮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교님은 언어를 익히는데 남다른 감각이 있다. 모국어는 프랑스어, 신학대학교에서는 라틴어를, 로마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으며 이탈리아어를 익혔고 영어도 곧잘 하신다. 한국어는 당신의



<©이재각>

또 다른 모국어다. 사제들은 매일 미사를 드리는데 주교님은 날마다 언어를 바꿔가며 미사를 드린다고 하셨다. 올해 초 대만에 가셨을 때 계단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졌고 응급 수술 후 한 달 지나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어 한국으로 돌아오신 적이 있었다. 그때 중국인 집도의에게 더듬더듬 중국어로 편지를 남기고 왔다는 말씀을 듣고는 우리 주교님 참 어지간하시구나 싶었다.

덕분에 고관절이 엉덩이의 어느 부위인지 이제는 정확히 알고 그 세 글자를 한자로도 잘 쓰게 되었어요. 하하하.

경북 의성의 주교님댁에서 경북 봉화의 내 방(월세방에 살기 때문에 집이라고 하기 좀 그렇다)에 데려온 호야를 의자에 앉혔다. 포장마차 같은 데서 펼치는, 사방 어디에도 등받이가 없는 모양의 의자인데 금속 재질이고 묵직하다. 나는 의자에 앉아 별을 쏘이며 책을 읽는다. 읽던 책을 펼친 그대로 의자 위에 뒤집어 놓고 일어나 다른 집안일을 한다. 의자 위에서 가만히 었드린 책의 표지 위로 별이 얼마나 내려앉았나 보면서 시간의 흐름을 가늠한다.

의자 위에서 일어나던 일들은 이제 호야 차지다. 양치식물이 무성하게 그려진 아껴둔 패브릭 포스터가 호야에게 어울릴 것 같아서 의자에 깔고 그 위에 화분을 놓았다. 호야는 본디 열대 상록활엽수림의 짙은 녹음 아래 사는 식물. 따뜻한 곳을 좋아하지만 직사광선은 꺼리는 편이다. 별뿔만큼은 편애할 것이다. 나는 눈치껏 비스듬히 비추는 광선을 쫓아 호야의 의자를 살짝살짝 틀어준다.

두봉 주교님은 때로는 더 크게 웃거나 웃음을 빼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신다. 내 방 의자에 앉은 호야에게도 좀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방이 따뜻하고 습하면 가뜩이나 두꺼운 잎이 더욱 뿔뿔해서 낮꽃이 밝다. 반대로 며칠 외출을 해서 방 안 기온이 전보다 크게 내려가면 잎이 쪼그라들어 안색이 어두워진다. 무뎀하다고 해서 호야가 표정이 없는 건 아니었다.

두봉 주교님 이야기를 4주에 걸쳐 전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세례자 요한 6

성경은 요한의 유년 시절을 단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루카 1,80) 요한은 자신의 의지로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삶을 준비하기 위해 광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한은 무엇을 위해 광야로 들어갔을까요?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 이 단어에 들어있는 다바르는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니 광야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즈카르야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루카 3,2)

또한, 광야는 새 백성의 탄생을 준비하기에 딱 맞는 장소입니다. 옛 백성이 광야를 거쳐 요르단강을 건넌듯이, 요한도 광야에서부터 요르단강으로 나아갑니다.

함신부가 들려주는
성경 인물 이야기



청소년 건진 캠프

50명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1월 17일(금)~ 19일(주일)까지 농은수련원에서 <건진 캠프>를 했습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루카24,48)를 주제로 참신나 교육팀 수녀님들(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과 함께 성경과 교리 안에서 다

양한 활동과 기도를 하고 건진성사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은총을 받아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예비신학생 겨울 캠프

1월 21일(화)~ 22일(수) 1박 2일 동안 신학생들과 예비신학생들이 상주 가르멜 여자 수도원으로 <겨울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즐겁게 축구도 하고 맛있는 저녁식사도 함께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의 꿈, 내가 되고 싶은 신부님'이라는 주제로 나눔을 하였고, 이튿날 상주지구 성당을 순례하며 미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더 많은 성소자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동신협

가톨릭과 함께하는 서민은행
정기예금 3.3% (1년)
안동시 태사2길 28(안동의료원앞)
T.054-859-1710

영주 독일 보청기

노인성 난청 전문
김 성 문 (스테파노)
영주시 구성로 333
(신호동 오거리 성누가병원 옆)
T.054-635-2498, 010-3693-7684

서울 프라임 치과

임플란트·교정·보철치료·치주질환
원장 김재권 미카엘
안동시 옥동사거리
T.054-859-2879

서민 식육 식당

등심, 갈비, 차돌박이, 양지, 불고기, 삼겹살, 목살
점심특선: 주물럭, 불고기, 육회 비빔밥, 곰탕
전국 택배 가능
이택규 (마티아)
예천군 호명면 양지3길 21 (호명초 앞)
T.051-655-4994, 010-9494-4074

문경새재 임격정가든

40년 전통 손두부전문 능이버섯 한우두부전골
홍창식 안젤로 박순분 안젤라
문경읍 새재로 870번지
T.054-571-2285, 054-572-0027

(주)이우텍

디지털문화 콘텐츠 전문기업
홈페이지, 쇼핑몰 구축·유지보수
홈페이지: www.iwootec.com
T.054-843-5700

천주교안동교구사회복지회 다미안 의원

피부질환, 레이저클리닉, 보톡스
(수익금은 사회복지에 위해 사용됩니다.)
영주시 봉화로 2(상망동)
T.054-633-6762

한국금거래소 상주점

골드바, 실버바 / 선물용 / 순금기념품
민물수있는순도, 최고가 고금매입
신속조 요안나
상주시 상산로 277
T.054-536-5000



교구장 동정



2월 11일 재무평의회
2월 12일 마산교구장 착좌식
2월 16일 초등부 복사단 연수

기억합시다

2월 15일 노광명 로제리오
신부 33주기



교 구

2월 열린성경 강좌

일 시: 2. 10(월) 19:30~ 21:30
장 소: 갈전 마티아 본당
준비물: 성경, 필기구, 참가비 5,000원

2025년 안동교구 예비신학생 등록

대 상: 사제성소를 꿈꾸는 중고등부
남학생(중1~고3), 대학생과 청년
등록 기간: 2. 12(수)까지
등록금: 1인 50,000원(1년)
문 의: 사목국 성소담당(054-858-3115)

2025년 초등부 복사단 연수

일 시: 2. 15(토) 14:00~ 16(주일) 16:00
장 소: 농은수련원
대 상: 첫영성체를 한 후 복사단 연수에
참가하지 않은 어린이
(2024학년 기준으로 6학년까지의
남,녀 어린이)

구역장·반장 교육(상주 지구)

일 시: 2. 15(토) 13:30~ 17:00
장 소: 개운동 본당
준비물: 필기도구, 개인 물통
참가비: 1인 5,000원
신청 마감: 2. 5(수)

사목국 공소탐방

일 시: 2. 16(주일) 14:00
장 소: 영양 본당 청기공소

제 단 체

2025년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정기총회

일 시: 2. 22(토) 14: 30
장 소: 점촌동 본당 교리실(소성당)
일 정: 접수, 시작 예절, 정기총회,
파견 미사 후 저녁 식사
참가 문의: 010-3071-6347(사무국장)
010-4539-8288(부위원장)
* 각 본당 정평위원은 꼭 참석 바랍니다.

임상사목교육(CPE) 교육생 모집

대 상: 자신과 위기 영혼의 영적돌봄을
원하시는 분
장 소: 교구청(새봄 CPE센터)
기 간: 3. 19(수)~ 6월 말(12주간)
매주 수요일, 12:30~ 18:00
교육비: 40만원(자부담 30 + 교구지원 10)
문 의: 황영화 신부(010-5119-1158)
한국CPE협회 홈페이지: www.kacpe.com

수 도 회 · 피 정

예수회센터 봄학기 동영상 강좌/ 3월 개강
비대면 실시간 동영상(ZOOM, 구글미트) 강좌
영성과 철학상담:

아픈 영혼을 '철학'으로 치유하기
매주 화요일 19:00~ 21:00, 12주 과정
하늘씨앗 깨어나기(영성수련)
화요일반, 목요일반, 금요일반: 19:30~ 22:00, 13주 과정
(금요일반은 20~30대 청년대상)
신 청: 02-3276-7733, <https://center.jesuit.kr/>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성소모임

일 시: 2. 15(토) 14:00
장 소: 개화동 수도원(서울)
문 의: 010-3800-1579

상주가르멜 여자수도원 성소모임

고독과 침묵 안에서 기도의 사도직에
부름받은, 봉쇄 관상 수도생활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을 초대합니다.
장 소: 상주시 내서면 우서로 80-21
연락처: 010-3502-0507 (08:00~ 17:00)

교 육

경북전문대학교 2025학년도 작업치료과 신입생 모집

모집 기간: 2. 28(금) 까지
대 상: 고등학교 졸업자, 성인학습자
혜 택: 졸업 후 취업 100%, 영주시지원금
50~100만원, 만학도장학금50만원
입학 문의: 054-630-5267

프랑스 순례단 모집

(갈래 신부님 여정을 따라서)

일 자: 8. 24(주일)~ 9. 4(목)
(선착순 30명, 550만원 예상)
일 정: 파리, 스트라스부르그, 마르세유,
리지외, 몽쌍미셸,
수도원(트라피스트, 시토회,
몽쌍오필), 그리옹(고향마을),
모백 및 블로박 수녀원(무덤)
신 청: 마원 진안리 성지 010-9944-0145

가톨릭상지대학교

가톨릭상지대학교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시자율모집: 1. 15(수)~ 2. 28(금)
주간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치위생과
바이오제약과, 글로벌뷰티케어과
주말반학과: 사회복지과, 전기과,
전산세무회계과,
야간학과: 경영과, 사회복지과,
하이브리드자동차과,
노인건강지도과
입학문의: 851-3021 <https://www.csj.ac.kr>

치매 심리정서 전문가 무료 교육

일 정: 2. 15(토), 22(토) (총 2일 10시간)
시 간: 09:00~ 14:30 (중식 제공)
내 용: 치매의 이해, 증상, 평가 및 예방,
치매환자 케어
대 상: 고용보험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7

식품가공 개발과정 무료 교육

일 정: 2. 15(토), 22(토) (총 2일 10시간)
시 간: 09:00~ 14:30 (중식 제공)
내 용: 식품 트렌드 분석, 간편가정식
(HMR)제품에 대한 이해 및 실습
대 상: 고용보험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6

산후관리사 취업연계

일 정: 3. 4(화)~ 4. 4(금) (총 23일 138시간)
시 간: 09:30~ 16:00 (월-금)/ 중식제공
대 상: 미취업자(취업가능자)
혜 택: 무료교육, 훈련수당 20만, 취업연계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8

생성형 AI 활용 과정 무료 교육

일 정: 3. 15(토), 22(토) (총 2일 8시간)
시 간: 09:00~ 13:00
내 용: 생성형 AI 프롬프트 작성 및
나만의 음악, 이미지 생성, PPT제작 등
대 상: 고용보험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6